

<10만 선교를 위한-전도,관리,새벽기도>

작성일:2009년 10월 1일

작성자:주사랑

2009년 10월 1일 새벽 4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주사랑 입니다.2009년 10월 1일 새벽 4시부터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섭리사 전도, 관리, 강의에 주님께서 수고 많다 고맙다 하시면서 전도, 관리, 새벽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 하나 풀어서 저희를 위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위로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를 사랑한다 고맙다 해주신 감사한 말씀입니다.

섭리사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너희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아 이 새벽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내가 이야기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진정 사랑한다. 내 사랑들아. 진정 귀한 나의 사랑들아. 너희에게 무어라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까.

요즘 나 정말 바쁘다. 재림 준비하기에도 정신없이 바쁘는데 너희 통해 생명을 만난다고 정말 더 바쁘다. 그런데 나 행복하다. 정말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바쁜 적이 있었던가 싶다. 아니 정녕 없었다. 나의 2천년 생애 중 가장 희망찬 나날이다. 진정 희망 있다. 너희가 곧 10만을 해줄 청사진이 나는 이미 그려졌다. 분명 해낼 것이다. 나 참으로 기쁘다. 10만의 그날이 자꾸 구상이 되고 연상이 되어 나 계속 함박웃음이다. 내가 계속 웃고 다니니 선생도 보람이요, 영계 천사들도 힘나서 한다. 정말 수고가 많다. 정말 내 육신이 되어 뛰고 달려주어 고마워. 내가 정말 요즘 기쁘고 황홀하다. 마음 놓치말고 우리 열심히 하자. 전도 내가 하는 것이다. 너도 느끼지? 10만만 하겠냐. 더 할 것이다. 더 더 더 할 것이다. 왜냐고?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가 있으니 나 희망 부풀어 올랐다. 너희가 책임져 줄거라 믿어. 선생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정말 전도한다고 수고가 많다. 전도는 참으로 행복한 것이야. 너가 내게 나아올 때도

나 너한테 그리했다. 내가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너 사람 불러 데려오고 관리하고 직접 역사도 해주고 사탄 몰아내고... 해보니 느끼지? 나의 사랑은 태초부터 이리하다. 아비의 사랑이요, 애인의 사랑인 것이야. 사랑해.

전도하다가 낙심하면 절대 안되. 너도 나도 저들도 살자고 하는 것인데 죽으면 되겠느냐. 너만 손해다. 다 잘된다고만 하는데 나는 안된다고 염려하는 자들 많지?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그 고비 확 뛰어 넘어 올라오면 할 수 있다. 왜냐고? 나는 정말 요즘 전지전능함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 잘 안되는 지역, 교회, 개인은 스스로를 둘러보라. 하나 되었는지, 이성문제는 없는지, 내 주관인지, 말씀중심 안하는지, 애인이 없는지...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 절대 말씀 중심해야 한다. 전도방향을 알고 싶으냐? 그 주 말씀이 그 주 방향이다. 내가 핸들 잡아 움직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네비가 되어준 것이다. 선생이 운전하고 있는 격이다. 모두 이 차에 타라. 타기만 하면 가타부터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만 안하면 된다.

말씀 깊이 봐야 해. 말씀 따라 전 세계 운명이 돌아간다. 너희의 말씀의 검을 매일 갈고 매일 총알을 장전해. 말씀이, 기도가 그 방법이다. 무조건 해라. 이유가 없다. 지금은 몰아붙일 때다. 몰아붙일만한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가 지나면 전도할 시간도 없다. 환란이 온다. 이 때 전도한 생명과 이 때 나와 목숨 걸고 똬 경험과 추억과 영력이 있는 사람만 그 끔찍하고 끔찍한 심판의 때에 버틸 수가 있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도저히 생각도 못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너희 정말 수고 많은 거 안다. 그렇지만 더 더 더 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자. 아직까지 뒤쳐져있음 안 된다. 섭리사 단 한명도 전도의 사명에서 빗겨간 자가 없다.

또 이야기한다.

관리도 철저히 해. 정말 철저히 해. 생명 그물 절대

짜고 또 짜고 겹줄해서 놓치는 고기 없게 해. 지금 오는 자들은 모두 내가 데려오는 자로써 내가 그동안 준비시켜둔 월척들이다. 하나도 놓치지 말아라.

왜 이리 섭리사 잃어버린 양 많으냐. 관리 한 번만 관심 두고 했으면 안 잃어버렸었다. 너희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만나만 주었어도 다들 저기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지금 저들을 쳐다보니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사탄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

절대 지금 오는 자들은 저리 빼앗기면 안 된다. 내 영원한 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 둘 유실되면 십만 못 이룬다. 정말 철저하고 세밀하게 해야 해. 내 마음으로 해야 해. 정말 부탁해. 선생이 내가 되어 너희를 키워주었듯이 이제는 너희가 선생 손 타 컷으니 너희가 내가 되어 저들 좀 잘 길러줘.

내가 대목장 운영하니 너희는 그 안에서 소목장 운영하는 양치기가 되어줘.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줘. 진정 부탁한다. 그러다 선생 손 탈자 있으면 세운자 통해 연결해주고...

예전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관리가 아니다. 나를 드러내다오. 나는 드러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내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알려줘라.

선생 통한 나를 알리어라. 이단시비 일어도 너희가 대처함에 따라 달라진다. 오히려 너희가 의식하고 움찔움찔한다. 이 섭리사는 100% 내가 길러온 나의 역사니라. 진정 믿고 따라와라. 진정 믿고 따라오게끔 해줘라. 이성이든 친구든 돈이든 명예든 직장이든 부모든 다 버리고 나를 좇아 나를 최우선 두게 해줘라. 전도에 전도를 하게 하라. 처음 와서 나 배우고 친구들 데려오는 자들 내 일꾼이니 잘 챙기고 세워주고.

사탄들 발악에 발악이니 근신하며 기도하라. 생명들 빼내가려고 먼저 난리치다 안 무너지니 너희를 치기도 한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너희 옆에서 같이 노방하고 강의하고 관리하고 기도하는 나를 기억해. 그럼 무너지는 자 없다.

강의 너무 중요하니 꼭 깨어난 자가 해. 깨어난 자가 재림을 깨워줄 수가 있다. 섭리사 모두가 깨어나 나의 재림을 외치는 특공강사부대가 되어다오.

나의 사랑들이여. 진정 고마워. 내가 근데 부탁하나 더 할게. 우리 새벽에 꼭 만나자. 새벽을 깨우는 자가 내 재림을 깨운다. 새벽에 성공한 자가 하루를 승리하고 승리한 하루가 승리한 인생되는 것이다. 꾸준히 해야 해. 1시,2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할 거면 계속 4시 기도해. 팬찮아. 새벽 꼭 깨워야 해. 전도도 전도지만 너의 구원문제가 좌우된다. 마지막 때에 기도 안하면 지금까지 섭리사 좇아온 5년, 10년, 20년, 30년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날 새벽기도 못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복직될 수 없다. 그냥 그 새벽을 놓친 것이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말라. 새벽도 너희가 동의해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다. ‘더 자야지’ 동의했기에 더 자는 것이다. 나는 100% 새벽마다 직접도, 천사들 통해서도 선영, 협조영 통해서도 깨워준다. 너희 만나고 싶으니깐. 순간 눈 떠지게, 알람 통해, 꿈 통해 기타 등등으로 말이야. 기도하자. 우리. 섭리역사 성공비결은 새벽이다. 만왕의 왕이 시간이 언제 비는지 그 때 만나준다고 하면 모두 열일 제쳐두고 가지 않겠냐. 그런데 전지전능한 나 예수가 새벽시간 100% 너희 만나려고 시간 비워두고 기다리는데 아니 오히려 에스코트 해주는데 내 간 발걸음 민망하게 잠만 쿨쿨 자고 있구나. 그래놓고 ‘내가 안 느껴진다. 전도 안된다, 회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이야기 하고 있구나. 답답하구나. 새벽기도까지 내가 직접 말해야하나? 듣는 너희도 당연한 것인데 못해서 간증으로까지 말 들으니 민망치 않느냐. 선생이 새벽기도 현황을 보면 기가 막혀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토록 선생이 외치고 또 외쳤는데... 어쩔 그리 외치고 또 외치는 사명자 심정을 몰라주느냐. 기도하라. 깨어나라. 우리 다시 해보자. 마지막 기회다. 정녕 마지막이다. 곧 심판의 날도 곧 나의 재림날도 다가온다.

섭리사 내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복이 큰 자들이여, 지금은 돈도 집도 명예도 없을지라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치 말고 영원한 그 세계가자. 내가 영원한 복의 키를 쥐고 너의 손잡고 뛰고 달리고 있다. 마지막 그날 네 집 문 열쇠 넘겨줄게.

너희의 눈물, 나 다 안다. 내가 너 안다. 사랑해. 생명에만 빠지지 말고 나 사랑하니 전도, 관리, 강의

하나 되어 해줘. 하나 돼야 역사 일어난다. 나와 하나 되고, 선생과 하나 되고, 너의 영육 하나 되고 형제와 하나 되고 부서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지역과 하나 되고 전 섭리 선생중심으로 하나 되라.

나의 웃음꽃 선생 함박웃음 꽃 꼭 지어주라.

나의 부푼 꿈 식지 않게 해다오.

기쁘고 기쁘다. 사랑해. 내가 이 얘기를 듣는 개인
너에게 지금 사랑한다 이야기 한다. 사랑해. 사랑해.
열심히 하자. 안녕

사랑 가득 담아 나 주 예수가.